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66호 현대불교
2010년 1월 13일(음 11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문 없는 문으로 그냥 넘어설 줄 알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지금 현대 사람들이 때로는 이걸 물질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몸도 물질이지만 그것도 뼈를 다룬 걸로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무릎도 끼고 발목도 끼고, 팔꿈치도 끼고 그렇게 만들어놓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끼고 또 빼고, 또 끼고 빼고 이러다 보면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자체 내에서 그것을 그렇지 않도록 끌리세요. 마음, 이 마음으로 모든 게 절대적으로 응응이 되니깐요. 이 몸도 그렇지만 모든 게 다 그래요. 바깥에서 오는 거든, 용도에 따라서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모든 문제들, 모든 게 이게 절대적으로 응응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여기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내 곁이 이게 뭐라고 (잠심 자락을 잡아 보시고) 이걸 보고 절을 하겠습니까? 생각들 해보시죠. 이게 도대체 뭐니까? 그러나 이것을 보지 않고 자기가 위급하니까 그냥 땅바닥이고 어디고 아랑곳없이 그냥 절을 한 게 나한테 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패처럼 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부처님한테 한 거죠. 이게 부처 뒤에 숨어 있는 그 부처님 거기에까지 통신이 되게끔 했던 애깁니다. 안 하우인으로 뭐 땅바닥이든지 진흙이든지 비가 오든지, 그거 아랑곳할 것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네들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볼 때 '나한테 절을 해서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해요. 왜냐? 내 위패가 없다면, 하하, 나라는 위패가 없다면 부처님하고 통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앞잡이로서, 하하하, 심부름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몸뚱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까 직통 부처님께서, 뒤에 숨어 있는 부처님은 바로 그것을 아시고서 '예, 정말 가궁하구나! 정말 자궁하구나!' 뭐 자궁하게 빌고 기도를 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참, 그 도리를 진정코 믿고 알고 있구나!' 이래서 그저 나름대로 소신껏 그렇게 자기 마음먹고 한 대로 왜냐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진정코 그때 그렇게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를 몸은 그렇게 끌리지 않고도 진정코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됐다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 가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됩니까? 이 마음의 발전이라는 것이 없으면 천단을 넘을 수 있는 부처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를 알아서 다 본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니라, 그리고 다 할

줄 안다 하더라도, 이게 다 안다 하더라도, 타심통으로 다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다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다 듣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속명통, 즉 말하자면 어디서 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도 도가 아니니라. 그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딱 내가 쥐고서 이 누진(彌盡)으로 벗어나야만 그것이 바로 도니라.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보이고, 무슨 무슨 부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보이고 뭐 이런다고 해서 아이고, 고개 아쉬워서 그냥 야단을 하고 그게 도인 줄 알고 야단들을 하는데 천만에! 그거는 감

냥 일어나고, 생활 자체가 그대로, 행주좌와(行住坐臥) 그대로 그게 참선이에요. 행선이라든가, 와선이라든가, 입선이라든가, 좌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그대로, 이름이 각각 있다고 해서 각각 이렇게 해야만 공부한다 이런 게 아니고, 모두가 사람은 앉았다 서고 섰다 앉고 하는 것이 그대로, 행주좌와, 그대로가 참선이다 이겁니다. 한 뿌리가 한 나무를, 헤어질 수 없는 일체가 달린 한 나무를 살리고 있듯이, 하여튼 궁금한 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드러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큰스님: 이런 예가 있었어요. 어느 집 시어머니가 상자에다 옷을 해서 놓고 향아리를 해놓고 쌀을 놓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거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집으로 어떤 색시가 시집을 갔더라. 그런데 그 색시는 이 공부를 하는 색시예요. 그래서 하루는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기에, "그러면 모든 걸 주인공에다 맡겨봐라. 그것은 그냥 물건일 뿐이다. 마음에 맡기면 물건일 뿐이니, 시어머니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치우지 말고, 며느리로서 시

도 안 하시고 속 빠져서 들어가시더니 그날 저녁에 꿈을 꾸어가지고는 그 이튿날 "아, 참 이상스런 꿈을 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하니까 "아, 그 상자 속에서 글썽 전부 그냥 나가더라." 하하하. "상자 속에서 전부 나가서 구름을 타고 가는데 아이, 그 상자는 그냥 비었지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정말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이라고 "아유, 그런 꿈을 꿴데 정말 저 상자는 비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그러면 어머니 꿈이 그냥 맞겠네요. 그러니깐 그거는 그냥 태워버리는 게 좋겠지요." 하하하. "그러라, 비었더라." 그러더라고요.

질문자(남):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설법하시는 중에 이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심성과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과학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학이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다 해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스님께서 심성과학을 말씀하시니, 참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연구를 해가면서 어떻게 그 심성과학을 해나갈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당신의 누진(彌盡)에 있는 녹음된 것 전체의 한 개체 없는 개체를 발견해야, 지금 현재의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통신이 되고 상봉을 해야 이거는 그런 심성과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개체를 딱 짚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을 지금 물질과학에서는 말을 하죠, 요걸 조금도 틀리지 않게. 그런데 심성과학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게 우주라면 벽도 없고 붓장도 없고 그냥 자유예요. 자유! 자유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서 잘릴 거라면 이리로 틀고, 또 이리로 틀어서 안될 거라면 저리 틀어버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놓는데 만약에 적이 들어온다 하면 적을 알고고 적이 안 들어온다 하면 꺼지고, 또 적이 이쪽으로 왔다 하면 이쪽으로 기계가 돌아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요것이 과학이다. 요것이 틀림없고, 요거는 작고 요거는 크고, 둘레는 어떻게 이런 건 심성과학이 못된다 이런 거지. 이 심성은 체가 없어서 사방이 툭 터졌어, 그냥 문 없는 문이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을 찾아서 공부하려면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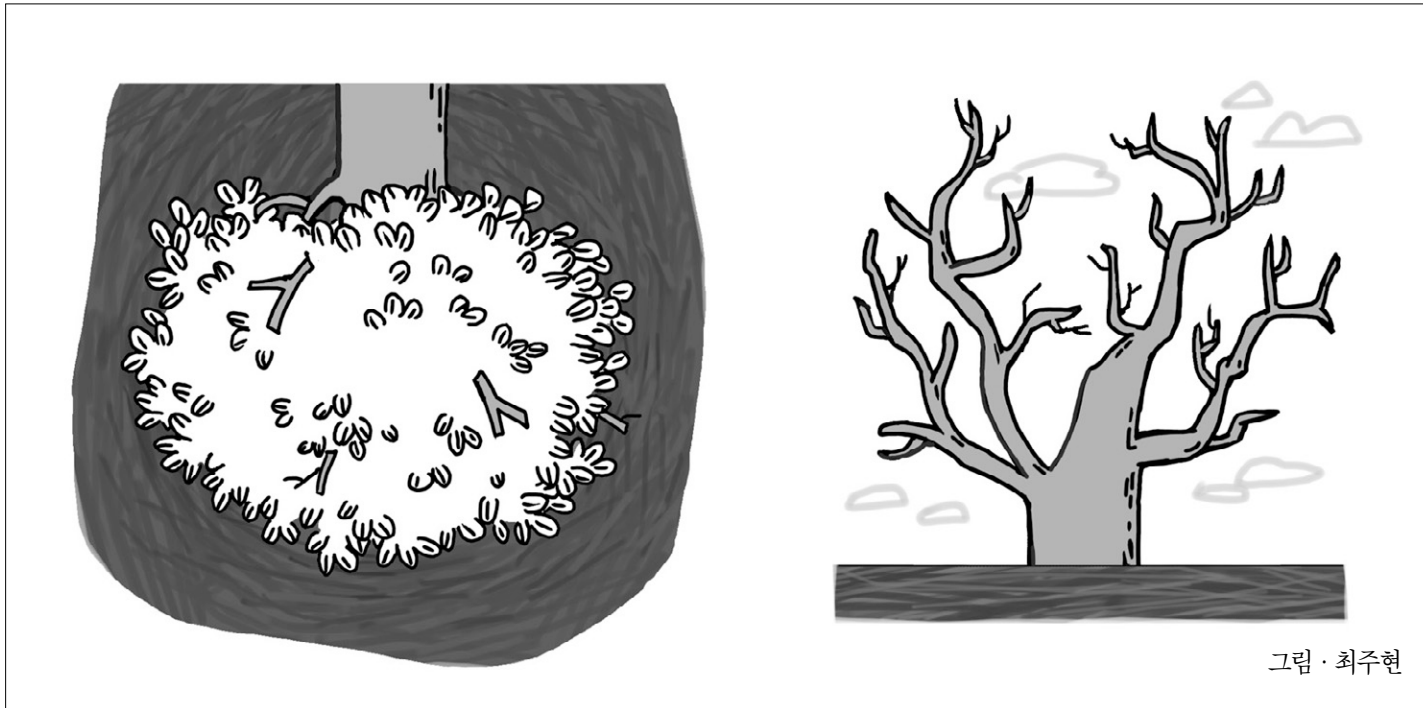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사하게 놓기만 하면 돼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는구나!' 하고 거기다 참 놓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여주는 것도 공부니까, 들리게 하는 것도 공부고 모두가 공부일 뿐이지, 수행하는 과정일 뿐이지 그게 도는 아니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우리가 정열적으로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오만 신경을 다 써가지고 그냥 그렇게 찾는다고 앉아서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온통 야단을 하지 마시고요, 또 책을 그냥 몇 시간씩 보고 그냥 온통 정신을 다 어지럽게 하지 마시고요, 편리하게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보기 싫을 때 놓고, 또 시간이 나서 앉고 싶을 때 앉고 앉기 싫으면 그

질문자(남): 스님, 제가 얼마 전에 고모님 댁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찾아뵙는 건데요, 그 집이 굉장히 초라하고 그랬었는데 집 안 귀퉁이에 조그만 단지가 있었습니다. 옆에 쌀도 있고요, 그래서 저게 뭐가 싶어서 고모님한테 여쭙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신 시어머님을 갖다가 모시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섬뜩했는데 알고 보니 그 고모님은 오랫동안 불자로서 부처님을 믿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싫어서 고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모님은 그냥 제 이야기를 흘려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고모님을 위해서 마음을 내

어머니의 마음을 어깃장을 내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고 너만 알고 한마음으로 모든 것을 넣어서, 모든 걸 날게 되면 천도가 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선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더보면 면지를 털기 위해서 거기 까지도 막 치고 털고 이러니까 시어머니는 깜박 죽는 거죠. 그거 모셔놓은 데다가 힘부로 그렇게 면지를 털고 그러느냐고요. 그러니깐 그 며느리가 있다 하는 소리가 "어머니, 이것도 면지가 앞으면 아니 되니까 면지를 깨끗하게 털어드려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자도 면지가 있으면 상자가 더럽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냥 말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謹賀新年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야나불교문화원)

회장 (이사장) 수암(법혜)

<산하기관 및 부설단체>

대구사원주지연합회신도회

마하야나불교대학

수성구청소년수련관

(2009년 3회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3년마다 평가-)

달서구청소년수련관

(2009년 우수기관 선정)

마하야나불교합창단

수성구지역자활센터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수상)

공립은아어린이집

(2009년 서구청장 표창)

달서구청소년지원센터



대구 남구 물베기 1길 9(대명동) 불교대구회관
T. 053-629-9500 / www.dgbulgyo.com
e-mail : maha9500@naver.com

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장단 (재)대한불교일부선교종대구교구

교구원장	백운고봉
부원장	도정
교구중의장	만성 중앙중회의원 도정
중앙중회의원	지공 총무국장 무경
규정국장	무상 사회국장 법광
감사	무상심

법성, 해일, 진승, 법인, 지현, 무법, 명신, 지원, 용암, 경덕, 지용, 성수, 혜주, 석월, 무상, 금융, 해경, 석원, 효연, 법지, 자광, 고성, 정암, 자행, 보리심, 보명화, 대법화, 묘법심

입증안내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호종하고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종무소 :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439 달마선원
전화 053)986-7134 / 팩스 053)986-7135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정예하	법정
부총정예하	성월
장로원장	봉봉
총무원장	혜상
총회의장	도일
교육원장	법운
교무원장	담담
호법원장	창창
복지원장	덕산
비구원장	해광
경북교무원장	해광
경남교무원장	경공
대구교무원장	종법
총무부장	금오
교무부장	해인
사서실장	구산

■총무원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산 428번지 봉황사
전 화 : 054) 632-2799 핸드폰 : 011-228-7813

재단법인 선학원

지원정사

주 지 우 록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 FAX 053)983-1698

경인년 청소년포교! 선두에서 뛰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 중·고등학교

이 사장 종광

종교장 김영현 교교장 양근식

법인사무국장 일릉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85 (지산동 800)
TEL 053)764-0807